

# 목포, 지역 발전 책임자 누구?...여수, 후보 난립 '격전 예고'

## 목포시장

민주당 3파전 뒤 본선 혈투 예고  
박홍률 전 시장 무소속 재선 도전  
관광·산업 대전환 공약 쏟아져



강성휘 박홍률 이호균



전경선

장을 역임한 이 전 총장은 타 후보들보다 늦게 당내 경선참여를 결정했지만, 뒤늦게 뛰어들 만큼 밤낮없이 활발한 선거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전 총장은 특히 역대 목포시장 중 목포 출신이 없었다는 점을 활용해 '목포 토박이' 론을 내세우고 있다.

잠시 교육계에 몸 담았지만, 도의원을 두 번 역임하고 민주당 계열에서 단 한번의 탈당 경력도 없었던 그는,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 입당을 강조하고 있다.

전경선 전남도의원도 강력한 경쟁 후보군이다. 전 의원은 11~12대 전남도의원으로 목포시 현안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데, 무엇보다 강력한 조직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현직 전남도의원으로 목포시 현안에 전문성을 갖추며 유권자들에게 어필해왔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소속 박홍률 전 목포시장도 다시 한 번 시장직에 도전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임에도 비교적 손쉽게 승리를 거머쥔 박 전 시장은 임기 도중 일련의 사건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났지만, 목포해상케이블카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그동안의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박 전 시장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자와 결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시장은 앞서 조국혁신당 입당 가능성도 나왔지만, 무소속 출마로 가닥을 잡고 지지세 넓히기에 나서고 있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에서도 후보자 출마가 예상되는데, 지역정가에서는 과격적인 인물 공천이 없는 한 사실상 무소속인 박 전 시장과 민주당 후보와의 양자 대결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목포·백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여수시장

석유화학 부진에 재선 행보 영향 우려  
다자 경쟁 속 재선·세대교체 맞붙  
여수산단 고부가가치 전환 공약 집중



정기명 김순빈 김영규



명창환



백인숙



서영학

전남 최대 산업도시인 여수는 40년 간 도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던 석유화학산업이 끝모를 부진을 거듭하면서 도시 경쟁력이 감소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해있다.

기반사업 붕괴가 현직 시장의 입지마저 흔들면서 수많은 입지자가 여수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여수시장 후보군의 공통된 공약이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전환으로 집중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변호사 출신의 정기명 시장은 아직까지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 온화한 성품으로 4년간 비교적 무난하게 시장을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석유화학 부진이 재선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정 시장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여수시장 출마를 고려 중인 후보는 6명으로 전·현직 정치인과 행정관료 출신 등이 당에 신청서를 냈다.

가장 먼저 여수시의원 6선에 달하는 김영규 시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시의회 의장을 두번이나 역임한 김 의원은 후보군 가운데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표심 구애 활동을 하고 있다. 시의원 선거에서 여섯번이나 당선될 정도의 탄탄한 지역 조직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3선 시의원을 지낸 김순빈 전 부시장도 일찍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표방을 다지고 있다.

여성 도전자도 눈에 띈다. 백인숙 여수시의회의장은 여수시의회 첫 여성시장으로 이번에 첫 여성시장을 목표로 지지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출마를 공식화한 백 의장은 의정경험을 토대로 '관광 활성화' '민생 안정' '공직사회 혁신' 등 3대 축을 제시하며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서영학 전 청와대 행정관도 다크호스다. 지방고시 출신으로

여수에서 공직을 시작해 중앙부처와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한 서 전 행정관은 중앙부처 인맥과 다양한 경험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이광일 전남도의원도 지난 24일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경쟁에 뛰어 들었다. 3선 도의원이니 의원은 여수산단의 발전전략을 갖춘 전문가임을 자임하고 있다.

주중섭 전남도의원은 또 한번 체급을 올려 선거에 도전한다. 건설노동자 출신으로 7대 여수시의원에 당선된 뒤 제8회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입성한 주 의원은 이번엔 여수시장에 출사표를 냈다. 이번 선거에선 조국혁신당의 활약 여부도 관심이 다. 여수는 지난 8번의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3번이나 승리했을 정도로 민심 예측이 어려운 지역인데, 이 틈을 노려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혁신당 입당을 결정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해상풍력·친환경 선박...목포 미래산업 격돌

### 민심·관전 포인트

해상풍력·RE100·물류거점 도시 구상  
'무안반도 통합' 공감 속 실행력 시험대

이번 목포시장 선거의 핵심 키워드는 '추락한 지역 경제 회복'이다. 또한 지역소멸위기 극복의 수단으로 제시되는 무안반도 통합 문제에 대한 비전에도 지역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성휘 부의장은 목포를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의 서남권 허브 도시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목포를 해상풍력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배후단지 조성, 전용부두 건설 등을 약속했다. 또 전통 산업인 조선업과 관련, 목포를 친환경 선박 메카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호균 전 총장은 "목포는 고속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4대 인프라를 모두 가진 지역으로 물류 중심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리적 이점을 살려 대(對)중국 물류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과 인근 도시의 산업수요를 흡수하는 거점 배후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보였다.

전경선 의원은 부족한 재정을 감안, 세라믹산단 리모델링을 통해 신산업을 유치하고 민간기업을 유치해 '해양플로팅센터'를 선점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RE100산단 조성도 약속했다.

박홍률 전 시장도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해상풍력 기저재 기업 유치, 신재생에너지 거점 도시 건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재생에너지산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잡고 있다.

후보자들 대다수는 무안반도 통합에 공감하고 있었다. 이호균 전 총장은 단선에 그치지라도 목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전경선 의원과 박 전 시장도 임기 내에 통합 추진을 약속했다. 강 부의장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방식처럼 정부가 전폭 지원 아래 특례시 출범에 노력할 뜻을 내비쳤다.

목포지역 봉사 단체인 '평광' 박재봉 대표는 "이번 목포시장 선거는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후보자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침체일로 석유화학...여수 선택은 '산업 대전환'

### 민심·관전 포인트

고부가가치 화학·소부장 특화단지 제시  
노동 일자리 보장·정주여건 개선도 쟁점

여수시장 선거는 침체일로의 석유화학산업을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 제시가 유권자 표심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규 시의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전환을 일환으로 석유화학단 입주 기업의 재투자를 제안했다. 기업들의 재투자를 독려해 산업단지에 연구소를 이전시키고, 이른바 '골목없는 산단'으로의 변모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여수국가산단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수소차 등 자동차공장 유치를 약속했다.

백인숙 의원은 '산업 포트폴리오 재편' 계획으로 ▲여수산단 고부가 스페셜티(고부가가치) 화학 전환 ▲울촌·묘도 산단 차세대 소부장 산업단지 구축 ▲화양·오천 산단 RE100 산업단지 재설계 ▲태양광 기반 '여수산단 에너지 세이프 프로젝트'를 통

한 전력비용 절감 등 산업단지 재편과 경쟁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서영학 전 행정관은 산업 다변화와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석유화학의 고부가가치화는 물론 인근 도시인 사천의 방산, 고흥의 우주산업 등 주력 산업의 소부장 단지를 여수산단에 유치하겠다는 의지다. 또 '여수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 추진 계획도 내놨다.

이광일 부의장은 NCC 설비를 철거하고 산단 내에 수소·이차전지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설비 철거 기간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수소 산업 설비를 대거 구축해 산업을 대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오랜기간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울촌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선 김영규 시의원이 서울 난지도와 같은 지상공원을, 서영학 전 행정관이 해외 유명 미술관 한국관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수산단 플랜트노조 관계자는 "석화산단 재편 방향성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가진 후보에 시민들의 관심이 향할 것"이라며 "정주여건 개선과 의료, 교육 문제에도 후보들 간 건전한 경쟁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함유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